

보도시점 2025. 1. 21.(화) 09:40 배포 2025. 1. 21.(화) 09:10

##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 대응 방향 논의

-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영향 및 대응 방향 점검 -
-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경제·외교·안보 협력 강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화)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3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늘 출범한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對美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과 함께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함에 따라, 관세 등 무역정책 개편과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등 일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 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 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하였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對美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획재정부 <총괄>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완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이동휘 (hui1219@korea.kr)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767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형 (sanghyeong@korea.kr) 사무관 홍가람 (ddallokx2@korea.kr)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김동윤 (02-2100-7684)
		담당자	서기관 채유승 (yschae@mofa.go.k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sanghoon319@korea.kr)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정지선 (jiunjeong@korea.kr)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방진아 (044-200-2178)
		담당자	서기관 성인영 (inyoungs@korea.kr)